

NC선수 4명, 호텔에서 여성 불러 술판 확진 후 역학조사서 동선 허위진술



NC 박석민, 권희동, 이명기, 박민우(왼쪽부터)의 코로나19 확진 사태와 관련한 항간의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판명됐다. 14일 박석민은 6~8일 두산 베어스와 잠실 원정 3연전 기간 중 호텔 객실에서 팀 후배 3명과 지인 2명이 동석한 가운데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 자리를 함께한 이들 4명의 NC 선수 중 백신을 접종한 박민우만 코로나19 감염을 피했다.

‘NC발 코로나 쇼크’ 사건 전말

박석민·권희동·이명기·박민우 등 4명
호텔로 여성 2명 불러 심야 술자리
강남구 “선수 등 확진자 5명 수사의뢰”
NC 황순현 대표 “책임지겠다” 사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와중에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선수 4명이 방역지침을 어기고 심야에 호텔에서 여성들을 불러 술판을 벌여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 이후 역학조사에서 동선까지 허위로 진술하는 등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정숙소 호텔에서 여성 2명 불러 술판

NC 선수단이 5~7일 원정 숙소로 사용한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한 진단검사에서 NC 박석민, 권희동, 이명기 등 3명이 확진됐다. 2020도쿄올림픽 국가대표로 백신(화이자)을 접종한 박민우는 술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6, 7일 NC와 경기를 치른 두산 베어스 선수단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로 인해 프로야구는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

이번 집단감염의 출발점은 NC 선수단이다. 박석민, 권희동, 이명기, 박민우 등 4명은 6일 새벽 원정 숙소인 강남의 한 호텔 자신들의 방에서 외부인 여성 2명을 불러 술자리를 가졌고, 이 부적절한 술자리는 심야까지 이어졌다. 합석한 외부인이 유호업 종사자라는 소문까지 나왔다. 박석민은 14일 여성을 “지인”이라고 고만 밝혔다.

●확진 후 역학조사서 동선까지 거짓말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NC 선수들은 사후 당국의 방역역학조사에서 동선까지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구청은 14일 이 같은 혐의로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과 일반인 여성 2명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박민우는 대상에서 빠졌다. 박민우는 이날 국가대표 반납의 사를 밝혔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NC 야구단 집단감염 사태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6명 중 5명을 방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며 “혐의는 방역지침을 위반해 코로나에 감염된 뒤, 당시의 동선을 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단도 5일간 미적거리다 뒷북 사과

NC 구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줄곧 함구했다. 12일

KBO 이사회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강남구청이 해당 선수를 고발하는 등 사태가 커지자, NC는 14일 뒤늦게 황순현 대표이사 및 베테랑 박석민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14일 사과문에서 “선수단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리그 진행이 중단된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해당 선수들이 원정숙소에서 외부인과 사적 모임을 가졌고, 구단은 이에 대한 관리부실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방역당국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선수뿐 아니라 대표이사 이하 구단 관계자들도 경중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박석민은 “나를 포함해 일부 선수의 잘못으로 리그가 멈추는 상황이 벌어진 만큼 변명보다는 합당한 처분을 기다리는 게 맞다. 징계가 내려지면 겸허히 받겠다”면서도 “다만 위 내용 이외에 항간에 떠도는 부도덕한 상황이 없었다고 우리 넷 모두의 선수생활을 걸고 말씀 드린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사태의 전말을 사과문에 담지 않는 등 부실한 NC의 사과에 대해 “선수 감싸기용 사과”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박석민의 사과문에는 “떡볶이, 치킨, 맥주 등 메뉴만 나열된 ‘박석민 세트’였다”는 조롱 섞인 말까지 등장했다. NC의 사과에도 여론은 쉽게 잠잠해지지 않을 전망이다.

▶ 관련기사 2·3면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성남FC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4일 현재 모두 11명으로 늘었다. 자고나면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K리그는 전면 중단 없이 확진자가 나온 팀의 경기를 연기하면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성남 11명 등 감염 확산 프로축구는 괜찮습니까?

성남 선수 5명·스태프 6명 확진…제주·대구도 비상
연맹 “성남·제주·대구 경기만 연기…전면중단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4차 대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K리그1(1부) 성남FC의 ‘집단감염’ 상황이 심각치 않다. 하루하루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성남 구단은 14일 “선수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성남 선수단의 확진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었다. 이 중 선수는 5명, 스태프는 6명이다.

12일 첫 확진자 발생을 공지한 성남은 이후 코칭스태프와 지원스태프를 포함한 선수단 46명 전원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3일까지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14일 2명이 추가됐다. 특히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들의 경우, 첫 검사 때는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13일 뒤늦게 의심 증상을 보여 재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자로 판명됐다.

성남은 “1차 검사 당시 음성이었던 선수들이 잠복기를 거쳐 추가로 증상을 보였다. 위기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음성 판정을 받은 이들까지 증세를 꾸준히 확인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개별적으로 진행된 가운데 일부 스태프는 24일까지 격리를 통보받았고, 나머지 인원들도 격리 일정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코로나19가 성남만 덮친 것은 아니다. K리그1 제주 유나이티드도 6일 선수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선수단 상당수가 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인원들은 전원 음성이었으나,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분류돼 단체훈련을 할 수 없게 됐다.

대구FC는 해외 원정에서 유탄을 맞았다. 최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펼쳐진 2021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조별리그에 나선 대구는 12일 귀국한 뒤 선수 1명이 확진됐다. 결국 ‘코호트 격리’가 취소되고 원정을 다녀온 구단 임직원과 선수단 전원이 클럽하우스에서 2주간 격리를 거치게 됐다.

그러나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리그 중단’ 카드를 꺼내진 않을 방침이다. 방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확진자가 나온 팀의 경기들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다. 성남, 제주, 대구의 경기만 일부 연기된다. K리그의 코로나19 매뉴얼에 따르면 2주 격리를 통보받은 팀은 격리 후 5~7일 정도 재정비 시간을 부여한 뒤 예정된 경기를 소화한다. 연맹은 “리그의 전면 중단은 고려하지 않는다. 정상 진행이 어려운 경기들만 순연된다. 예비일도 많이 있다. 모두가 방역에 주의한다면 리그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1879 Golf



방문 피팅카 서비스 운영

☎ 양재피팅센터 1855-1879

☎ 부산피팅센터 070-4603-1879

1879 LONG DRIVER EDITION

1879 FITTING CENTER

“1879 롱 드라이버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1879골프 피팅 센터는 전문 클럽피터와 티칭프로의 노하우로 최적의 피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윙 속도에 자신 없는 골퍼

타점을 잘 못 맞추는 골퍼

비거리를 늘리고 싶은 골퍼



• 1879 클럽만의 GOD 자동 맞춤 피팅

• 1879 클럽 자동 피팅 프로그램 운영

• 피팅 전문가가 직접 피팅 제조